

주부 박원영씨의 '하우스 콘서트·전시회'

무대는 아파트 관객은 이웃들



한희원 작 '꿈길 밖에 길이 없어'

패 넓은 공간이라 60~70명 정도는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 아들 또래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린이음악회'는 박씨가 가장 해보고 싶은 행사. 또 전문가를 초청, '서양미술사의 이해' 등 미술 강좌도 구상중이다.

"정말 편하게 들려 차 한잔 마시며 그림 구경하고 음악도 들으시면 좋겠어요. 갤러리에 걸린 그림이 집안에 걸리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아파트뿐 아니라 이웃 아파트 주민들도 환영합니다."

박씨는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문화를 즐기고 어느 집 문을 열고 들어가도 작은 음악회와 전시가 열리는 '예향 광주'를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514-03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생활속 문화공간 표방 '갤러리 안' 꾸며

21일 음악회, 22~31일 한희원 작품전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에 걸리는 작품은 '꿈길 밖에 길이 없어' 등 13점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파트를 방문하면 차 한잔씩 마시며 무료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박씨는 계절별로 하우스 콘서트와 전시회가 결합된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음악회는 좀 더 자주 열 계획이다. '정오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주부들을 위한 살롱 음악회를 준비중이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에게도 무료로 공간을 내줄 계획이다. 264㎡의



'생활속 문화공간'을 꾸민 박원영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갤러리 안'으로 꾸미고 오는 21일~31일까지 하우스 콘서트와 전시회를 개최한다. 공연을 앞두고 연습중인 박원영씨. /위작량기자 jwji@kwangju.co.kr

음악과 그림을 좋아하는 주부 박원영(37)씨는 격식이 갖춰진 공연장이나 갤러리 문턱이 너무 높아 아파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음악회나 전시회에 가면 '진짜' 관객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아는 사람'끼리 즐기는 '집안 잔치'라는 느낌이 강했다.

누구나 예술과 친해하려면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하게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문화가 흐르는 소박한 공간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격식 차리지 않고 가벼운 차림으로 마실 나가듯 들려 음악도 듣고, 그림도 감상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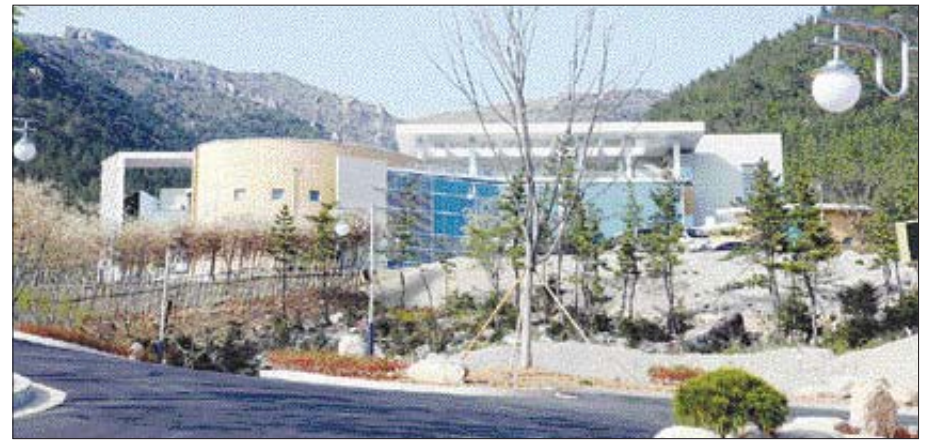
오랜 고민 끝에 박씨는 '생활속 문화공간'을 표방하며 자신의 아파트(광주시 북구 운암동 아이파크)에 '갤러리 안'이라는 또 다른 문패를 달았다. 그리고 하우스 콘서트와 전시회가 어우러진 첫번째 초청장 '오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보냈다.

'갤러리 안'이라는 이름은 '편안하다'는 뜻과 음악회나 전시회를 보러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도심 외곽에 갤러리 등이 문을 여는 추세지만 박씨는 생활속, 일상과 근접한 공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꿈'을 실현으로 옮기게 해 준 건 공부였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현재 조선대 대학원(미학·미술사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박씨는 미술공부를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21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하우스 콘서트는 클래식으로 연주하는 재즈와 탱고, 가요 등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편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류형민·이상복·이수연·오승석씨가 출연해 '봄날은 간다', 거친의 '썸머타임', 피아졸라의 탱고 곡들을 들려준다. 박 씨도 해금,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 피아노 연주를 선사한다. 관객들을 찾아 나서는 하우스 콘서트의 의미에 모두 공감, 음악인들은 노 개런티로 참여했다.

22일부터 31일까지는 서양화가 한희원씨의 작품이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장흥 천관산 문화테마파크 전경.

천관산 문화테마파크 7월 개관

장흥군 2010년까지 286억 들여 '문학특구' 조성

문화관광기획특구(이하 문학특구)를 추진 중인 장흥군이 오는 7월 '천관산문화테마파크' 개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특히 군은 오는 7월 지역출신 문화예술인과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문화예술상공인대회'(가칭·상공인대회)를 개최,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당초 5월 말로 예정했던 '천관산문화테마파크'의 개관 일정을 7월로 미뤄 상공인 대회와 연계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다.

장흥은 현대문화의 거목인 한승원과 이청준, 송기숙 등을 비롯해 각종 문예지를 통해 중단한 문인 80여명을 배출해 낸 명실상부 한 문학의 고장.

문학특구는 지역출신 문인들이 고향을 배경으로 쓴 문학현장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장흥군은 오는 2010년까지 286억 원을 투입, 대덕을 연지리와 관산을 삼산리, 안양면 기산리 일대 57만8천517㎡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학특구에는 '천관산문화테마파크' '문학현장 개발' '문화페스티벌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대덕을 연지리(14만1천650㎡)에 추진 중인 '천관산 문화테마파크'에는 글쓰기 방과 작가 쉼터, 공연장을 갖춘 문예관이 들어서고 돌담 테마공원, 문학비 공원,

외국문학공원과 한국문학공원, 백일장 마당, 산책로가 설치된다.

또 문화기행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청정해역인 득량만 일대에 '문화페스티벌파크'도 건설한다. 이밖에 가시문화 발원지와 '서편제', '천년화' 등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촬영 현장을 체험하는 관광코스 개발도 준비중에 있다.

또 군은 지역의 문화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최근 지역 출신 대표작가 3명의 자료집도 펴냈다.

자료집은 '삶과 역사를 일군 이야기꾼-송기숙', '한승원-문학의 자유·사랑·꿈의 속살', '이청준-삶과 소설을 위한 향연' 등이다. 책에는 새 작가의 연보가 작품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됐으며 작품론과 희귀한 사진 등도 함께 수록됐다. 군은 매년 3~5명의 작가를 선정해 자료집을 만들 계획이다. 자료집이 필요한 개인과 단체는 군 문화관광과(061-860-0527)나 장흥별곡문학동인회(061-862-7762)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장흥군 문화관광과 한 관계자는 "문학특구 지정으로 문필고를 장흥의 상징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문학특구를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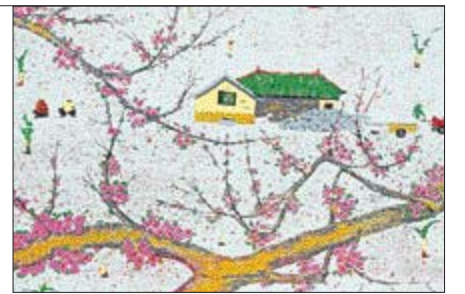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박구환씨 대만 초대전

'복숭아꽃' 등 목판화 20점 전시

나뭇결이 살아 있는 서정적인 목판화를 선보이고 있는 박구환씨가 오는 6월1일까지 대만 신사유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초대전에서 박씨는 100호 크기의 '한가로운 마을' 시리즈를 비롯해 '늦은 오후' '가을 속으로' '등대' '복숭아꽃' 등의 신작 20점을 전시한다. 목판화가 주는 투박한 미감과 파스텔톤 색채가 어우러지는 등 기존 작품에 비해 한층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복숭아꽃'

'한가로운 마을' 시리즈는 남도의 바닷가 풍경과 어부들의 일상을 조형화했고 '등대' '복숭아꽃'은 봄의 생동감을 표현했다.

조선대 미술학과 출신으로 27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출신 의병장 홍민연·최시망 선생 추모 사당 건립 추진

나주 출신 의병장 호은공(肅隱公) 홍민연(1537~1626년)선생과 최시망 선생 등을 추모하는 사당이 건립된다.

19일 나주시와 박령사(朴嶺社·가칭)건립사업추진위원회는 "이들 의병장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많은 활약을 펼쳤던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도천부락 일대에 1천487㎡ 규모의 사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향교 임원택 전교, 정제강 유도회장, 홍도희 모성회장 등 지역 유림과 흥대영·최경교씨 등 후손들이 참여한 추진위는 최근 부지를 후손들로부터 기증받았다. 또 15억여원의 공사비를 추가 모금해 올해 안으로 건립

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령사는 이들 의병장들의 호국충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향행사와 지역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쓰이게 된다.

홍민연 선생은 선조 26년(1592년) 최시망 선생과 함께 나주 일대에서 의병 1천여명을 모집해 남원 운봉에서 왜군 208명을 섬멸하고, 지식강 전투에서 왜군 300여명을 수장시켰다. 또 군량미를 모아 김천일 장군의 부대에 조달하는 등 임진왜란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편 아버지를 도와 왜적과 싸운 홍민연 선생의 두 아들이 민성·시정 선생의 위패도 박령사에 함께 모셔질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영화안내' (Happy Time Movie Guid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for Megaple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Grand, Hami Cinema, and Zeil Cinema. Each listing includes movie titl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